

극우 ‘리박스쿨’ 운영 도내 초등학교에선 없어

전북교육청, 현황 조사 결과... 교육부 지침 따라 늘봄학교 세부 조사키로

전북지역 초등학교에는 ‘리박스쿨’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현황 조사를 실시한 결과, 극우성향 교육단체 ‘리박스쿨’과 관련한 늘봄학교 업체나 프로그램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3월 기준 도내 초등학교와 계약해 늘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위탁업체는 모두 16곳으로, 이 중 리박스쿨 관련 업체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교육부의 전수조사 지침이 나오면 리박스쿨 관련 추가 업체나 민간자격증 소지 강사 등과 관

련해 늘봄학교 세부 조사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늘봄학교 운영 지침에 명시된 늘봄 프로그램의 정치적·종교적 중립성 준수 원칙을 학교에 다시 한번 안내하고, 늘봄학교 업체·강사 자격 기준 및 검증 절차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장은성 기자

로봇 원격조작 분야의 한계 넘는다

전북대 정창규 교수 등, ‘피부 부착형 센서 패치’ 개발

전북대와 성균관대, 건국대 공동연구팀이 기존 로봇 원격조작(teleoperation) 분야의 한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피부 부착형 동작 센서 패치를 개발했다.

3일 전북대에 따르면 정창규 교수(사진), 성균관대 방창현 교수, 건국대 임태현 교수가 참여한 이번 연구는 재료과학 분야 세계 최고 수준의 국제 저널인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R: Reports’(인팩트팩터 31.6)에 게재돼 학계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연구팀이 개발한 센서 패치는 생체모방구조를 활용해 기존 웨어러블 센서의 한계였던 에너지 자립성 부족, 신호의 불안정, 장시간 착용의 불편함을 동시에 해결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가상현실(VR), 재난로봇, 원격 의료 등 첨단 분야에서 차세대 인간-기계 인터페이스(HMI)로 주목받고 있다.

이 패치는 주름진 탄소나노튜브



인 신축에도 신호 저하가 없고, 압전소재는 손가락을 구부리거나 피부가 늘어가는 미세한 움직임만으로 전기를 발생시켜 별도의 배터리 없이 센서를 작동시키며, 원격지 로봇에 실시간 신호를 전달한다.

또한, 기존 의료용 데이터나 화학 접착제를 대신해 묻어 빨판과 물방개 다리의 구조를 모방한 계층형 접착층(OB 구조)을 적용했다. 이 구조는 땀과 물, 피부 곡면 등 다양한 환경에서도 강력하게 반복해 탈부착이 가능하며, 피부 자극이 거의 없고, 장시간 착용 시에도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다.
실제, 센서 패치는 사용자의 손 움직임을 VR 환경에서 로봇 손에 실시간으로 전달해 드라이아이스 같은 위험 물질을 안전하게 원격 조작하는 데 성공했다. 특히 땀이나 물에 젖은 상태에서도 신호가 안정적으로 유지돼 수술 작업이나 재난 현장 등 극한 환경과 의료 분야 등 원격조작 환경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에 참여한 정창규 교수(전북대 신소재공학부 전자재료공학전공)는 “이번 연구는 기존 피부 부착형 센서가 소재 혁신이나 단순 신호 증정에 머물렀던 것과 달리, 극한환경이나 실내 원격조작 환경에서 정밀성과 신뢰성, 에너지 자립성이라는 실질적 난제를 해결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며 “앞으로 가상현실 기반 원격조작, 재난로봇, 헬스케어 등 미래 융합분야에서 새로운 표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학교는 지난 2일 새만금에 ‘전북에너지융합연구소’를 개소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사진=전주대학교 제공)

지역 에너지 생태계 조성 본격화

전주대, 새만금에 ‘전북에너지융합연구소’ 개소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새만금에 ‘전북에너지융합연구소’를 개소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3일 전주대에 따르면 전북에너지융합연구소는 에너지 분야 혁신 기술개발 및 맞춤형 인재 양성을 통해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한 부설 연구소다. 특히 에너지산업의 혁신과 성장 지원의 거점인 새만금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에 입주해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 에너지산

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계획이다.
지난 2일 열린 개소식에는 박진배 총장을 비롯한 전북특별자치도 신원식 미래첨단산업국장, 군산시 김종필 경제산업국장 등 산학연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전북에너지융합연구소는 전주대학교의 우수한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지역 산업 및 인프라와의 연계를 통해 △기업 지원 △인재 양성 △기술 개발 △정책 개발 등을 수행하는 에너지 특화 연구소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이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학교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지난 2일 국립임실호국원을 찾아 순국선열을 추모했다. (사진=전북대학교 제공)

“지역사회와 상생 발전 책임 다할 것”

전북대, 임실호국원 참배... 남원 글로벌캠퍼스 현장도 방문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지난 2일 국립임실호국원을 찾아 순국선열을 추모했다.

이에 따르면 이날 참배에는 양오봉 총장을 비롯한 대학 주요 보직자들이 현충탑에 헌화하고, 나라를 위해 희생한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뜻을 기렸다.
이어 6·25 참전 군인이 안장된 전북대 결연 묘역을 찾아 헌화했다.
앞서 전북대는 2019년 임실호국원과 ‘국립묘지 1사 1묘역 가꾸기’ 협약을 체결한 이후, 결연 묘역에 대한 정기적인 참배와 나무심기, 환경정화 활동 등을 이어오고 있다.

참배를 마친 후 남원으로 이동해 개교 준비가 한창인 남원 글로벌캠퍼스 예정부지를 찾아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양 총장 등 전북대 보직교수들은 최경식 남원시장 및 관계자들을 만나 남원 글로벌캠퍼스에 설립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양오봉 총장은 “지역과 조국의 안녕을 위해 산화하신 호국영령을 기리는 일은 지역과 함께하는 대학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며 “앞으로도 거점국립대학으로서 지역사회와의 상생 발전을 위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전북학생 시 페스티벌 성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지난달 31일 전주우림중학교에서 ‘2025 전북학생 시 페스티벌’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이 행사는 시의 아름다움과 감동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해 인문학적 감수성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국내 시인의 시를 3분 이내 암송하는 시 낭송 대회, 친구와 함께 당일 창작한 시에 어울리는 그림을 그리는 시화전 대회 등에 30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했다.

시 낭송 대회 각 부문 대상은 △초등부 전주봉암초 최지안 △중등부 왕궁중 이수호 △고등부 고창고 이정훈 학생이 각각 차지했다.

친구와 함께하는 시화전은 △초등부 대상 전주화정초 박소운·변하을 △중등부 대상 연성중 최유빈·문하나 △고등부 대상 유일여자고 권도연·오수아 학생에게 돌아갔다.

올해 새롭게 선보인 ‘지역시인과 함께하는 전북 시인학교’에는 총 6개반이 개설돼 시인과 학생들이 팀을 이루어 자작시를 쓰고, 합평하는 경험을 통해 풍성한 문학적 교류를 이어갔다. 서거석 교육감은 “시는 일상을 낮설게 바라보게 하고, 익숙한 마음을 새롭게 들여다보게 하는 힘이 있다”며 “앞으로도 인문학적 소양과 예술적 감수성 함양을 위한 인문학 교육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 영유아학교 시범운영 7개 기관 수업 공개

9일까지... 영유아교육·보육 질 향상 기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9일까지 영유아학교 시범운영 기관 7곳에 대한 수업공개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영유아학교 시범운영 기관은 △충북한 이음 시간 및 일수 보장 △교사 대 영유아 수 비율 개선 △수요 맞춤형 교육·보육 프로그램 강화 △교사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수업공개는 지난달 29일 이리성심유치원과 해바라기유치원을 시작으로 △2일 테바솔 어린이집 △4일 가운누리어린이집, 샘물숲어린이집 △5일 헤마어린이집 △9일 초록빛유치원 등으로 이어진다.

상반기 수업 공개 참가 대상은 영유아학교지원단 멘토와 영유아학교 시범운영 기관의 교(직)원, 유아교육 전공 전문직원이다.

하반기에는 도내 공사립유치원 교원과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수업공개에 참여한 유아학교지원단 멘토는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 어떻게 교사들을 지원할 것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이었다”며 “바람직한 유보통합기반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데 조금이나마 역할을 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장은성 기자

자율형 공립고 2.0 운영학교 내실화 지원

전북교육청, 양현고 등 8개 학교 대상 예산 편성 등 컨설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16일까지 도내 8개 자율형 공립고 2.0 운영학교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한다.

현재 도내에서는 양현고, 전주고, 전주술내고, 전주여고, 진안제일고, 군산동고, 김제여고, 순창제일고 등 8개 학교에서 운영중이다.

컨설팅은 지역사회기관과의 협약을 기반으로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자율형 공립고 2.0 운영학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게 목적이다.

컨설팅 영역은 △지역사회 기관과의 협약의 적절성 △교장공모 및 교원 초빙 계획의 적절성 △연구학교 운영 주제 △협약기관 등과 연계한 교원 연수 및 능력개발 계획 △자율형 공립고 2.0 취지에 맞는 예산 편성 등이다.
더불어, 컨설팅 지원단을 주축으로

서면 검토와 현장 방문을 병행, 자율형 공립고 2.0 운영 영역에 대한 컨설팅뿐 아니라 현장의 애로 사항 등도 청취할 예정이다.

특히 자율형 공립고 2.0 운영학교 컨설팅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율형 공립고 2.0 담당자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역량 강화 연수, 학교별 성과보고회 등과 연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최은이 중등교육과장은 “학생 개별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컨설팅 결과를 학교별 정책 수립 및 실행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2025년 교육부 공모를 희망하는 학교들에 대해서도 이미 조직된 지원단을 통한 밀착 컨설팅으로 대응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청렴 업’

아이디어 30일까지 신청접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직원과 함께 하는 ‘편린(Fun-Fun)한 청렴 업(UP)’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은 ‘종합청렴도 향상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를 주제로 진행된다.

공모분야로는 △청렴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전달 방안 △불합리한 업무 관행 및 조직문화 개선 △전북교육청 반부패 청렴 활동 개선 방안 등 3개 분야다.

청렴한 전북교육 실현에 관심 있는 교직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 희망자는 아래 쿼일(QR)코드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속해 응모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오는 30일까지다.

응모작 중 최종 10작품을 선정해 최우수 1명에게는 10만 원, 우수 3명에게는 각각 5만 원, 장려 6명에게는 각각 3만 원의 상품권을 수여할 예정이다.

또한 우수 아이디어는 청렴·반부패 정책에 반영된다.

/장은성 기자



군산부설초, '아버지와 함께하는

경제교육 STEAM 체험의 날' 운영

군산부설초등학교(교장 김신철)는 최근 ‘2025학년도 아버지와 함께하는 경제교육 STEAM 체험의 날’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3일 군산부설초에 따르면 지난 7년간 STEAM 선도학교로서 다양한 융합 교육 모델을 실천하며 학생들의 창의적 문제해결력과 실생활 경제 감수성을 함양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올해는 경제교육과 STEAM 활동을 결합해 배움을 극대화하고, 가족 간 유대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 협력을 통한 학습 몰입도를 높이고 정서적 소통의 기회를 제공했다.

행사에 참여한 학부모는 “아이와 함께 같은 공간에서 경제와 과학을 흥미롭게 배울 수 있어 뜻깊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장은성 기자